

영월시외버스터미널 공영화

추진에 따른 임대 운영

영월군은 오는 10월 31일자로 폐업 예정이었던 영월시외버스터미널의 기존 건물을 임대하여, 11월 1일부터 공영 방식으로 지속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영월군은 영월시외버스터미널 측과의 공영화 추진에 따른 부지 임대에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임시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재협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임대 운영 방안에 합의함에 따라 기존 영월시외버스터미널을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월군은 기존 영월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임차하여 여객운송 기능을 지속하며, 군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공영 형태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군은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존 시설과 접근성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영월군은 터미널 폐업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왔으며, 이번 임대 운영 결정으로 기존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게 되어 군민과 이용객 모두에게 더 안정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모빌리티 지원센터 &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 준공식

횡성군은 30일 횡성을 목계리에서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및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 합동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준공식은 지난 5월 「경상용 특장 제작 지원센터」 준공식에 이어 두 번째 합동 준공식으로, 횡성 이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 구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광태 경제부지사, 김명기 횡성군수, 한창수·최규만 강원도의원, 표한상 횡성군의회 의장, 천영길 KCL원장, 백재원 UTAC코리아 대표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현재 구축 중인 검증 인프라를 활용한 유럽형식인증 대응 시험평가체계 마련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와 횡성군, KCL, UTAC코리아 간 국내 최초의 글로벌 검증단지 구축 업무협약 체결 파포먼스가 진행됐다.

이를 통해 UTAC의 유럽 인증 체계와 연계된 국제 인증 및 기술 컨설팅 기반이 마련되어 미래차 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하고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직접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하 KCL, 원장 천영길)이 주관 연구기관으로 참여했다.

총사업비 480억 원(국비 240억, 도비 240억)을 투입해 ▲EMC(전자파 적합성 시험동) 1동 ▲배터리 안전성 시험동 2동 등 총 3개 동(연면적 3,835㎡)을 구축했다. 또한, 실차 주행이 가능한 시험주행로(Proving Ground)를 함께 조성해 배터리 팩의 성능 및 안전성은 물론 차량의 주행 테스트까지 수행할 수 있는 통합 성능 평가체계를 갖췄다.

강원특별자치도, 국회의원협의회 간담회 개최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24개 사업 612억 원 국비 추가확보 방안 등 논의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주요 현안 에스오시(SOC) 등에도 협력기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0월 30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7명과 함께 도 국회의원협의회를 열고 2026년도 국비 추가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도 정부예산안의 국회 심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도와 지역 국회의원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김 지사를 비롯해 지역구 국회의

원 보좌진이 참석해 예산 확보 전략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올해 국비 10조 원 시대를 처음으로 연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24개 사업(총 612억 원)의 국비 추가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해당 사업들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타 통과 ▲삼척~강릉 고속화철도 예타 통과 ▲포천~철원 고속도로 예타 통과 ▲소양8교 건설 국비 반영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최대 반영 등 강원지역 주요 에스오시(SOC) 현안과제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한기호 국회의원(강원 춘천철원과 천양구)은 “지금은 생존경쟁과도 같은 시기”라며, “여야가 힘을 모은다면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각 삼임위에서도 강원도 현안 사업들이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김진태 도지사는 “역대 사상 최초로 국비 10조 원 시대가 열렸는데, 이제부터가 이를 지켜내기 위한 진짜 시작”이라 전하며,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 강조했다.

또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원주시, 농진청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

원주시는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2026년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농약의 안전한 사용 및 유해 물질 관리 기술을 지원하고, 지역 푸드플랜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통해 농산물 생산단계와 로컬푸드 농산물의 안전성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이 구축될 예정이다.

원주시는 서면 심사를 거쳐 전북 임실군, 전남 보성군 등과 함께 선정됐으며,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유일하게

최종 선정 시군에 이름을 올렸다.

시는 확보한 사업비를 활용해 2027년까지 관내 농산물의 잔류농약(463종) 등 농업 분야 유해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하고, 실험실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상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로컬푸드와 학교급식 등 지역에서 생산·소비되는 먹거리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품질관리 기반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평창군, HAPPY700 상상놀이터 개관식 개최

평창군 「HAPPY700 상상놀이터」가 정식 개관했다.

평창군은 30일, 삼재국 평창군수, 평창군의회 의원, 관내 사회 단체장, 관내 학부모와 어린이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HAPPY700 상상놀이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HAPPY700 상상놀이터는 기존 운영되던 ‘꿈꾸는 실내 놀이터’에 지방소멸 대응기금 19억 원을 투자해 확대 조성한 것으로, 총면적 603.62㎡에 그물 쉼터, 클라임, 튜브 슬라이드 등 대형 놀이기구와 낚시 놀이, 주방 마트 놀이, 볼풀장 등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모든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14종의 다양한 놀이기구가 설치됐다.

평창군은 시설 안전과 운영 보완 사

항 검토를 위해 지난 1월 22일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으며, 시범운영 종료 후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마련하고자 추가 인테리어 공사와 배수 정비 공사를 추진하여 지난 8월 26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놀이터는 평창군의 모든 어린이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삼재국 평창군수는 “HAPPY700 상상놀이터가 단순한 놀이공간을 넘어 어린이들에게는 상상하고, 꿈꾸고, 어울려 자라는 따뜻한 배움터가 되고, 부모님들에게는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희망의 장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건강을 위한 최고의 동반자 파크골프 새 가능성을 열다

화천 기저질환 건강 전국 파크골프 대회, 29일 성료

전국의 암 경력자에 이어 기저질환자까지 저변 확대



파크골프가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의 발전 가능성을 활짝 열었다.

화천군 체육회는 지난 29일 하남면 산천어 파크골프장에서 2025 화천 기저질환 건강 전국 파크골프 대회 마지막 결선 경기와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내 처음으로 당뇨, 혈압, 심혈관계

기저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첫 대회에서 남자부 우승은 이영일(경기), 여자부 우승은 서현옥(경남)씨가 차지해 1위 상금 1,000만원의 주인공이 됐다.

지난 14일 예선전이 시작된 2025 화천 기저질환 건강 전국 파크골프 대회에는 1,600여명이 참여해 파크골프의

높은 열기를 실감케 했다.

화천군은 파크골프가 단순한 취미를 넘어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으로부터 회복을 돕는 ‘건강 동반자’라는 점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군은 지난 7월, 국내 스포츠 종목 중 최초로 암경력자만을 위한 전국 단위 파크골프 대회를 신설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파크골프 클럽만 32곳, 등록회원은 1,000명을 훌쩍 넘어섰다. 시설 확충도 활발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하남면 거례리 산천어 파크골프장 제1, 2구장, 용암리 파크골프장이 운영 중이며, 하남면에 18홀 규모 신규 코스 조성이 한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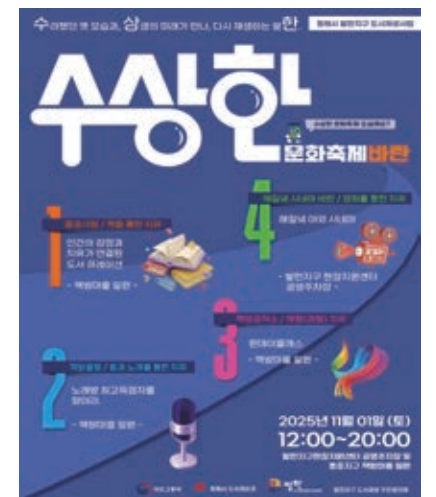
사내면 사창리에도 올해 사내파크골프장이 문을 열었고, 간동면에도 신규 구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모든 시설 조성이 완료되면, 화천지역에는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6곳이 운영될 전망이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파크골프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건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석 기자

동해시 묵호의 가을, 재밌을 준비 되셨나요?



동해시 발한과 동호지구를 중심으로 묵호 지역에서 도시재생을 위한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

오는 11월 1일 동호 책방마을과 발한지구 현장지원센터 공영주차장 일원에서 열리는 ‘수.상.한. 문화축제’는 묵호 지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특별한 문화재생의 장을 선보인다.

이번 축제는 한때 묵호항을 중심으로 번성했던 묵호 지역의 감성을 재조명하고, 도시재생을 통해 변화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축제에서는 ▲책을 통한 여유를 만

끽할 수 있는 ‘동호서림(書林)’ ▲노래와 춤으로 함께 즐기는‘책방폴링’▲아외 영화관에서 ‘코코’ 상영으로 힐링을 선사하는‘해질녘 시네마, 바란’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동호 책방마을에서는 1인용 북텐트에서 독서를 즐기거나 필사 체험 등 책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도 제공된다.

또, 묵호항의 전성기를 되살리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무대 ‘책방폴링’을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린 춤과 노래의 장을 마련한다.

이밖에도 아외 영화관에서는 의자에 앉아 애니메이션 영화 <코코>를 감상하며 묵호의 옛 극장을 추억하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정서에도기여할 예정이다.

축제 당일에는 SNS 인증샷 이벤트와 행사 만족도 조사가 함께 진행된다. 축제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업로드하면 도시재생사업 관련 기념품이 증정된다.

만족도 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도시재생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